



하지의 개인기·스토이치코프 강슛은 못잊어!

〈루마니아〉

〈불가리아〉

'발칸의 마라도나' 하지, 천재적 MF 세차례 월드컵 출전 16강 이상 견인 스토이치코프, 미월드컵 6골 득점왕 발군의 기량으로 그해 발롱도르 차지



크로아티아가 2018러시아월드컵 4강에 진출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앞서 1990년대엔 발칸반도 국가 중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월드컵에서 주목 받았다. '발칸의 마라도나'로 불린 루마니아의 게오르게 하지(왼쪽 사진)와 1994년 미국월드컵 득점왕인 불가리아의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

2018러시아월드컵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크로아티아는 발칸반도 북서부에 자리 잡은 신흥국이다. 구 유고슬라비아연방에 속했다가 1991년 분리·독립했다. 12일(한국시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넘는다면 발칸반도국가들 중에선 사상 최초로 월드컵 결승에 오르는 나라가 된다.

크로아티아에 앞서 월드컵을 강타한 발칸국가로는 구 유고,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꼽을 수 있다. 구 유고는 1930년 우루과이월드컵과 1962년 칠레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랐다. 발칸반도를 대표하는 전통의 축구강국이었던.

그 바탕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이어 받았다. 1994년 미국월드컵 때 루마니아는 8강, 불가리아는 4강에 진출했다. 크로아티아가 1998년 프랑스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발칸국가들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나라가 구 유고와 불가리아다.

구 유고는 너무도 오래된 기억인 반면 1990년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선전은 울드 팬들의 뇌리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이제는 전설이 된 게오르게 하지(53·루마니아)와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52·불가리아)가 화려하게 빛을 발하던 시기다.하지는 현란한 테크닉으로, 스토이치코프는 강력한 킥으로 월드컵 무대를 수놓았다. 미국월드컵 때는 하지와 스토이치코프 모두 베스트11에 포함됐다.

하지는 '발칸의 마라도나'로 불린 천재적 미드필더였다. 미국월드컵에 앞서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 때 등장한 그는 프

랑스월드컵까지 활약했다. 이 3차례 월드컵에서 루마니아는 모두 16강 이상의 성적을 냈다. 미국월드컵 때가 하지의 전성기 로 그의 발끝에서 3골이 터졌다.하지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양분하는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 유니폼을 모두 입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A매치 통산 성적은 122경기·36골이다.

스토이치코프는 미국월드컵 때 6골로 득점왕에 올랐다. 발군의 활약을 인정받아 그 해 발롱도르도 차지했다. 하지와 달리 자신이 전성기에 몸담은 FC바르셀로나를

향한 충성도가 높아 지금까지도 현지 팬들로부터는 레전드로 대접받고 있다. 한때(1999~2000년) 가시와 레이슬 소속으로 일본 J리그를 누비기도 했다. A매치 통산 성적은 80경기·41골이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월드컵 퍼스트 히스토리 ①

미국에 패한 축구종가 잉글랜드 결승골 가에첸스 아이티서 행불

1950년 제4회 월드컵 본선은 제1회 대회처럼 13개 출전국으로 진행됐다. 6월 24일 여전한 공사가 진행 중인 말라카낭 경기장에서 브라질-멕시코의 개막전이 벌어졌다. 5000마리의 비둘기가 날고 21발의 축포가 터졌다.

브라질은 8만1649명 관중의 기대에 보답하듯 개막전을 2-0 승리로 장식했다. 4만2000명의 관중 앞에서 벌어진 스위스와의 2차전은 2-2 무승부. 화난 브라질 팬들은 경기장으로 뛰어 들었다. 브라질은 말라카낭의 14만2049명 관중 앞에서 유고슬라비아를 2-0으로 꺾고 결선 라운드 진출을 확정했다.

2조에선 월드컵 역사상 대이변이 펼쳐졌다. 처음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종가 잉글랜드가 희생양이었다. 6월 25일 칠레와의 첫 경기를 이긴 잉글랜드는 같은 날 스페인에 1-3으로 진 미국을 맞이했다. 모두들 잉글랜드의 승리를 예상했다. 벨루오리 존치 미네이랑 경기장에는 1만151명의 관중이 들어왔다.

잉글랜드 선수들은 첫 경기 뒤 482km를 날아온 피로감에 몸이 무거웠지만 전반 15분 동안 5개의 위협적인 슈트를 날렸다. 이 가운데 2개는 골대를 맞혔다. 미국 골키퍼 보르기가 슈퍼 세이브로 2골을 막아냈다. 미국은 전반 37분 월터 바의 슈트를 가에첸스가 헤딩으로 연결해 골을 만들어냈다. 결승골의 주인공은 아이티 출신으로 콜롬비아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던 유학생이었다.

잉글랜드는 실점 이후 맹공을 퍼부었지만 미국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다. 월드컵 역사상 최대의 이변인 축구 종주국의 패배 뉴스가 런던에 전해졌다. 누구도 결과를 믿지 않았다. 잉글랜드가 10-0으로 이긴 경기의 오타라고 여겼다.

미국인들도 승리소식을 모르고는 마찬가지였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 한 곳만이 결과를 보도했다. 미국대표팀이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조차도 환영 나온 사람은 없었다. 필라델피아의 고등학교 체육선생님으로 대회에 참가했던 월터 바의 아내가 유일한 환영객이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결승골 주인공의 인생이었다. 월드컵 이후 프랑스 등 유럽리그에서 활동했던 가에첸스는 아이티로 돌아갔으나 행방불명됐다. 그의 가족은 독재자 프랑수아 뒤발리에의 반대편에 섰는데 체포당한 이후 누구도 생사를 알지 못했다.〈계속〉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날짜(현지시간)	구분	결과	개최지
1996. 4. 24	친선경기	잉글랜드 0-0 크로아티아	런던
2003. 8. 20		잉글랜드 3-1 크로아티아	입스위치
2004. 6. 21	유럽선수권 본선	잉글랜드 4-2 크로아티아	리스본
2006. 10. 11	유럽선수권 예선	잉글랜드 0-2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2007. 11. 21		잉글랜드 2-3 크로아티아	런던
2008. 9. 10	월드컵 예선	잉글랜드 4-1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2009. 9. 9		잉글랜드 5-1 크로아티아	런던

삼사자군단에겐 낯선 발칸의 후예들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내일 오전 3시 4강 빅뱅

잉글랜드, 역대 4승1무2패 우세 불구 현 대표팀선수들은 크로아티아 첫 대결

축구종가 잉글랜드와 신흥강호 크로아티아가 2018러시아월드컵 결승 길목에서 만난다. 12일 오전 3시(한국시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준결승전이다. 잉글랜드는 52년만의 우승이라는 단꿈에 빠져있고, 크로아티아는 사상 첫 결승행을 노리고 있다.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는 과거 7차례만 A매치를 치렀다. 크로아티아가 1991년 구 유고슬라비아연방에서 독립한 신흥국이기 때문이다. 잉글랜드가 4승1무2패로 앞서있다. 첫 대결은 1996년 4월 25일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친선경기였다. 0-0으로 비겼다. 이후 6차례 대결에선 모두 승패가 갈렸다.

양국의 2번째 대결로 2003년 8월 21일 잉글랜드의 포트먼 로드에서 벌어진 친선경기에서 잉글랜드가 데이비드 베컴~마이클

언~프랭크 램파드의 연속골로 크로아티아를 3-1로 제압하고 첫 승을 신고했다. 잉글랜드는 이듬해 6월 22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벌어진 유로(유럽선수권대회) 2004 본선 B조 경기에서도 웨인 루니의 2골 활약을 앞세워 4-2로 크로아티아를 꺾었다.

크로아티아의 반격은 유로 2008 예선에서 이뤄졌다. 홈(자그레브·2006년 10월 12일)&어웨이(런던·2007년 11월 22일)의 2차례 대결에서 2-0, 3-2로 모두 크로아티아가 웃었다. 지금은 베테랑 미드필더인 크로아티아의 루카 모드리치(33·레알 마드리드)가 파릇파릇한 20대 초반의 신성으로 등장해 이 두 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풀타임을 뛰었다.

양국은 월드컵예선 2차례 대결만 소화했다. 2010남아공월드컵 유럽 예선 6조에 속해 2008년 9월 11일 자그레브, 2009년 9월 10일 런던에서 맞붙었다. 잉글랜드가 4-1, 5-1로 크로아티아를 대파했다. 크로아티아의 최전방 공격수 마리오 만주키치(32·유벤투스)는 2008년 대결에서 만회골을 뽑았다. 현 잉글랜드대표팀에선 크로아티아와 싸워본 선수가 전무하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잉글랜드를 180도 바꾼 '하이브리드 축구'

픽&롤·스크린·리브트레인 작전 NBA 전술, 다양한 세트피스 접목

잉글랜드의 '하이브리드 축구'가 28년 만에 월드컵 4강을 이끌었다.

잉글랜드는 8일(한국시간) 스웨덴과의 2018러시아월드컵 8강전까지 넣은 11골 가운데 8골을 세트피스 상황에서 만들었다. 팀이 이번 대회에서 얻은 골 가운데 73%다.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 전까지 유난히 세트피스에서 약했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독일을 상대로 넣은 매튜 업슨의 골 이후 월드컵 등 메이저대회에서 세트피스 득점은 없었다. 유로2012, 유로2016과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얻은 코너킥 기회는 72번이었는데, 단 한 번도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런 팀을 환골탈태시킨 주인공은 가레스 사우스게이트(48) 감독이다.

그는 축구전술에 농구와 NFL(미국프로 풋볼)의 전술을 결합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할 공간을 만들어내는 농구를 통해 필요한 시스템을 많이 얻어왔다. 농구의 기본 플레이 방식인 픽&롤과 스크린 플레이를 세트피스에 적용했다.

특히 상대 수비수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바람잡이(decoy)의 사용이 큰 효과를 봤다. 스웨덴과의 8강전 코너킥 케인과 수비수 해리 매피어는 콧속말로 사인을 주고받은 뒤 바람잡이 작전을 썼다. 스웨덴 수비수들이 경계하는 케인은 코너킥이 날 아자야 공이 없는 곳으로 수비수를 달고 이동하면서 빈 공간을 만들었다. 이 자리를 차지한 매피어는 노마크 상황에서 헤



잉글랜드는 리브트레인 작전과 바람잡이 전술 등으로 세트피스를 강화해 러시아월드컵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3일 콜롬비아와 16강전에 앞서 어깨 동무를 한 채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잉글랜드선수단. 모스크바(러시아) | AP뉴시스

더를 쏘았다. 콜롬비아와의 16강전도 마찬가지였다. 쉽지 않은 바람잡이의 공간창출과 페널티박스 부근에서의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결국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코너킥 때 4명의 공격수가 열차놀이를 하듯 한 줄로 늘어선다. 공이 날아오는 순간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이동하는 일명 리브트레인 작전을 통해 상대 수비수의 마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크로스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4명의 공격수가 함께 움직여 상대로서는 누구를 마크해야 할지 어디로 움직일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축구장보다 훨씬 좁은 농구코트에서 5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NBA(미국프로농구)의 다양한 전술을 세트피스에 접목시킨 잉글랜드의 하이브리드 축구는 이번 월드컵에서 선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